

1분기

3. 첫 안식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빛과 공기,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또 날아다니는 새들과 해 염치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단 닷새 만에 만드셨답니다. [손가락으로 다섯까지 세어보세요](#)



© Alan D. Wils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여섯째 날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여섯째 날은 이 세상에서 정말 굉장한 날이었어요. 성경에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만드시니”(창세기 1:25)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답니다. [그림 #1](#)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모두 매우 온순했어요. 그들은 물거나 할퀴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동물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들을 좋아할 거라



간추린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공기와 물을 만드셨지요. **우**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도 만드셨고요. 이 모든 일을 닷새 만에 하셨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답니다. [그림 #1](#)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매우 온순했어요. 그들은 물거나 할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동물들을 좋아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 이제 이 세상은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나요? [고무찰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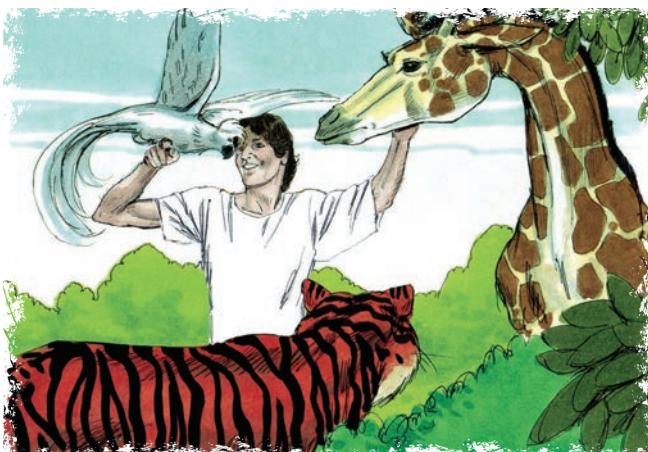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 계속)

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을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사람이예요!

여러분은 고무찰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만들 어 놓은 것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추고 아 이가 이름을 말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이 맨 처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미소를 지었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새 그리고 물고기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엄청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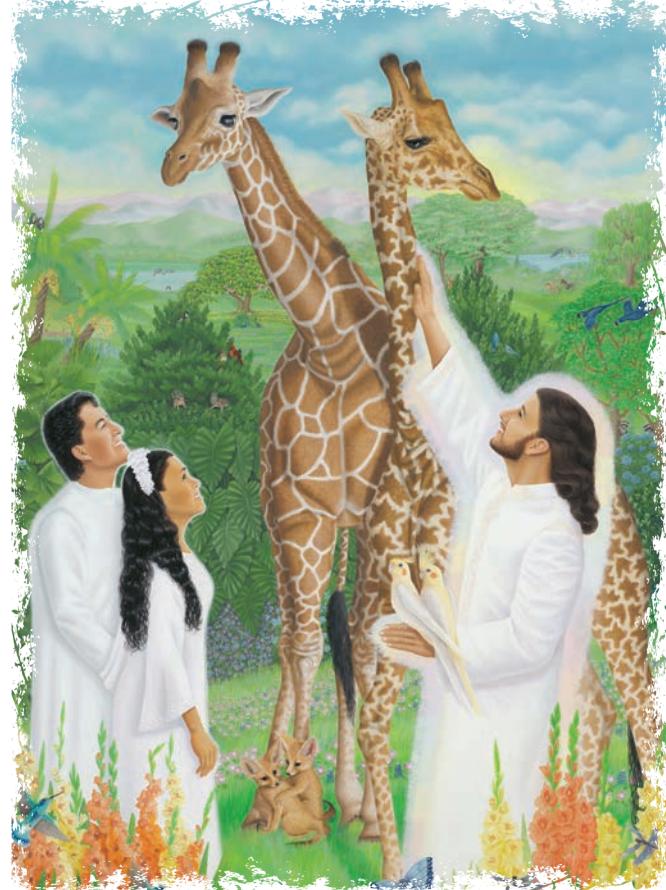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은 사슴 두 마리가



2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지요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기린 두 마리가 함께 걷고 또 오리 두 마리가 나란히 헤엄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담은 오로지 혼자였어요. 그곳에 아담과 함께할 사람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 그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셨어요. 아담은 전혀 이것을 느끼지 못



3 하나님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시고 아담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요. 하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그림 #2 아담은 사슴 두 마리와 오리 두 마리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를 보았어요. 오직 아담만 혼자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그럼요. 이제 그는 함께할 친구가 생겼답니다. 그림 #3 아담은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혼시키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첫 번째 결혼식이었답니다.

이제 세상의 창조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림 #4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아주 멋진 날이지요.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뼈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깨어났을 때 행복했을까요? 맞아요. 이제 아담은 함께 할 사람이 생겼거든요.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결혼시키셨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결혼식이었답니다. **그림 #3**

이제 세상의 창조는 행복한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을 주셨어요. 이 특별한 날은 매주 같은 요일이 될 것이었어요. 이날은 매주 금요일에 해가



금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지면 시작해요. **그림 #4** 이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특별한 날에는 아담, 하와와 함께 지내셨죠. **창세기 2:2, 3을 함께 읽어보세요**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날을 기대하며 지내지요. ○○자녀 이 름(이)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기 좋아하나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엄마 아빠를 주시고 귀여운 동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절

Mission: 노래로 암송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8



시각 자료

성경, 고무찰흙(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참고 성경절

창세기 1:24-31, 2:1-3, 7장, 18-23장



활동하기 56쪽



부모 길잡이



안식일은 창조 역사의 기념일이므로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이 연결되어져야 한다. 만물이라는 펼쳐진 책으로부터 실례를 끌어내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푸른 나무 아래 모여 하늘 아버지를 배우고 찬미하는 부모는 행복할 것이다. 교육 251

키가 가장 큰 동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사야 65:25

하 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다양한 색과 모양과 크기로 만드셨어요. 어떤 동물은 작게 만드셨고 또 어떤 동물은 키가 크게 만드셨지요.

여러분은 키가 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어린이들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매우 키가 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몸을 구부려야겠지요.

하나님은 한 동물을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크게 만드셨어요.

키가 큰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나요? 맞아요. 바로 기린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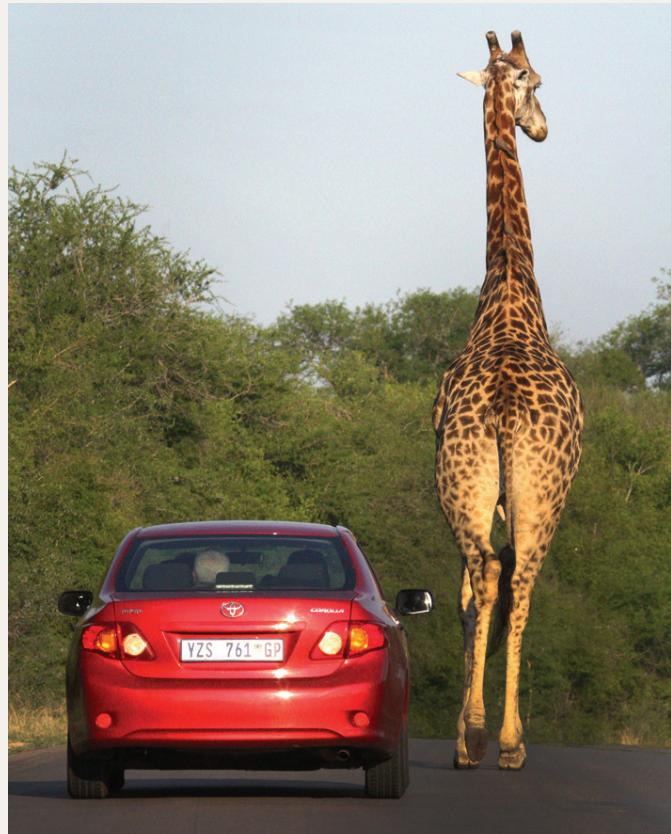
기린은 다리가 매우 길어요. 그것이 기린이 키가 큰 이유 중 하나이지요. 기린이 키가 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기린의 목이 아주 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은 기린을 돌보아 주시고 계세요. 그분은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연한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린에게 긴 다리와 목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린이 안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쉽게 숨을 수 있도록 기린에게 얼룩무늬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기린이 더운 곳에서 살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기린이 나뭇잎을 먹을 때 혀를 입 밖으로舒새 없이 날름거릴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기린의 혀에 어떤 물질을 입히셔서 기린의 혀가 강한 햇빛에 타지 않도록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린의 혀는 보라색이립니다.

하나님은 기린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 Steve Evans. License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린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